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 나의 부활과 구원

저희 둘째 아이는 아픔니다. 생후 육 개월 되던 해 2월, 제 주도에 여행 갔다 숙소에서 아이가 갑자기 떨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워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경련은 주기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난치성 질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밤낮으로 우는 아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이가 어리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만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섯 살이 된 둘째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동안 아이가 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스스로 많이 다독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회사 파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올림픽대로로 접어든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 왔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겨우 차를 몰아 출근하긴 했지만 그 후로 몇 달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잠은 물론 잘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 머리를 쳐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발적 발작성 불안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다락방에 올라가 소리치며 울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잔을 제 앞에서 거두어가시라고. 그렇게 올라가 원망하는 것도 지쳐가던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비오야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봐 주고 사랑해주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대로 자라주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선과 마음을 느꼈을 둘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순간 부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울아매고 있는 욕망과 판단과 계획과 기대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게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은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교리상식

교리도 어려운데 사회교리라니요?

가톨릭교회가 중대한 사회 문제에 응답한 최초의 문헌은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이 반포한 회칙 「새로운 사태」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는 현실 사회에 대한 사회교리를 교회의 가르침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엄중 경고해 왔지요. 이렇게 볼 때 사회교리는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그냥 의무로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실천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